‘붓다의 딸’들 서울로…세계 위기 극복 논한다

18th SAKYADHITA SEOUL 2023 샤카디타 세계대회

18차 샤카디타 대회 6월 23일 개막
27일까지 서울 코엑스, 봉은사 일대
‘위기의 세상에 깨어 있기’ 주제로
27편 논문발표, 문화행사·사찰순례
30개국서 여성불자 3000여 명 집결

한눈에 보는 샤카디타 서울 대회

아침명상	매일 아침 1시간씩 진행
세계의 명상	6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세계 유명 명상지도자 3인의 명상 진행
논문발표	논문 당 20분씩 한 세션의 발표가 끝난 후 질의 응답시간. 장소는 코엑스 3층 오디토리움
워크숍	샤카디타 대회의 독특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 10개의 워크숍이 동시에 2층의 여러 회의실에서 열리고, 각 워크숍은 90~120분간 진행.
법문	6월 24일 저녁 7시~ 8시 30분
문화공연	6월 25일 저녁 7시~ 9시
사찰순례	공식 대회가 끝난 후 6월 28일~30일 2박 3일간 진행. 월정사, 백담사, 낙산사를 방문해 사찰 참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예정.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전국비구니회와 샤카디타코리아가 주관하는 ‘제18차 샤카디타대회’가 6월 23~27일 서울 코엑스와 봉은사 일대에서 성대하게 개최된다. ‘위기의 세상에 깨어 있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학술발표와 문화행사로 나뉘어 진행된다. 논문발표와 한국과 세계를 아우르는 다양한 워크숍,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사찰순례가 준비됐다. 특히 사찰순례는 ‘한국의 자연, 천년고찰, 그리고 명상’을 주제로 명상과 쉼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3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열리는 것이라 더욱 뜻깊다. 각종 행사들에서는 30개국 3000여 명의 전세계 여성불자들이 팬데믹과 기후위기, 전쟁 등 전 세계를 공포와 혼란으로 빠뜨린 위기 앞에서 당당히 서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총 29건의 워크숍에서는 각국 불교문화를 한자리에서 살펴보고 체험해 볼 수 있다. 한국불교계에서는 사찰음식과 탁본, 발우공양 등 한국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계획이다. 세계의 수행법을 체험해볼 수 있는 ‘세계의 명상’ 시간은 티베트 불교 명상과 테라와다 위파사나 명상, 미국 선불교 명상을 직접 비교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매일 저녁 예불은 팔리어와 티베트어, 베트남어 등 동참 국가의 언어와 의식으로 진행, 각국의 불교 의식에 대한 이해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했다.

9건의 포스터 발표는 환경과 불교계 성평등 문제를 직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논문발표는 △한국의 불교여성 △젠더에 대한 고정관념과 무상성 △깨달음의 추구: 비구니 수계의 현황 △순례, 수행, 그리고 불완전한 인간존재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 적용하기 등 다섯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총 27편의 발표 논문 중 황수경 동국대 명상심리상담학과 겸임교수의 ‘현대사회의 생활 속 수행의 필요성: 대행 선사의 생활선을 중심으로’는 대행 선사의 전법 특성을 통해 불교가 당면한 문제와 앞으로의 실천방향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혁신적 리더십의 성과와 관련된 요소로 성역할 고정관념에 초점을 둔 동국대 불교학부 조교수 정완 스님의 ‘한국불교에서 성역할 고정관념과 리더십’은 변혁적 거래적 리더십, 리더십 특성에 대한 불교적 기대와 성역할 고정관념의 관계, 사회자본, 여성리더 수용 등을 고찰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밖에도 인종주의, 자본주의, 환경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불교 페미니즘 정치학의 가능성을 들여다본 장리우의 ‘근대의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선 불교 페미니즘 정치학’, 비구니 사원이 외진 지역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논의하고 비구니사원과 지역공동체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 텐진 양첸의 ‘인도 아루나찰 프라데시 주, 몬 지역 비구니사원의 발전’, 현대적 맥락에서 여성 존중의 역사적 담론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 페마 칸트로의 ‘왜 불자여성은 존중받아야 하나:14세기 티벳불교의 관점에서’ 등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국비구니회장이자 샤카디타 대회장 본각 스님은 “위기의 시대, 여성불자들의 역할과 극복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하기 위해 한국에 모인 여성불자들이 서로 다른 현실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문화를 배우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대회에 참여하는 모든 여성불자들이 마음을 열고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깊은 성찰과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02)6288-6325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예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우리 사회에 산재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언을 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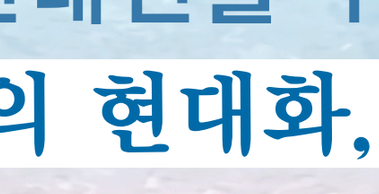
조 장관은 “불교계 봉사단체들의 활발하다는 보고를 받았다. 정부 차원에 감사드린다”면서 “정부에서도 더 많은 사회적 약자를 돕기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범종 스님 “직지는 한국불교 자부심”

6월 7일, 서울 중국문화원서
인쇄문화 강연 ‘직지’로 설명



“직지심체요절은 한국 선불교의 자부심이죠.”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범종 스님이 6월 7일 서울 주한중국문화원 다목적홀에서 진행된 강의 ‘한-중 인쇄문화와 훈민정음’에서 “직지는 깨달음을 알려주는 불교경전”이라며 마음을 바르게 보고 깨달아야 한다는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 직지)의 핵심대목을 강조하고 이 같이 말했다.〈사진〉

이날 범종 스님은 직지(直指)는 ‘마음을 바르게 보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인간의 본성을 찾는 과정을 소를 찾는 과정에 비유해 그린 심우도(尋牛圖)를 활용, 불교 참선의 궁극적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팔만대장경, 석보상절, 월인석보 등을 통해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찬란한 인쇄문화를 꽃피운 한국불교문화유산의 우수성을 되짚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범종 스님은 4월 프랑스국립도서관에서 열린 특별전 ‘직지’를 기념하며 4월 12일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직지의 편찬배경과 한국불교의 인쇄문화유산’을 주제로 강연한 바 있다. 범종 스님은 “서지학적으로 현존하는 최초 금속활자로서 직지에 대해 국민들과 세계인들이 관심은 있지만 대다수가 직지 내용에 대해 잘 몰라 직지가 어떤 내용인지 알리는 강연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01년 9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지된 직지는 백운 스님(1298~1374)이 고승들의 어록을 가려 엮고 그 제자들이 간행했다.

참선을 통해 스스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주제들과 선불교 진리를 담고 있어 제자들을 위한 시침서로 사용됐다.

독일에서 1455년 제작된 ‘구텐베르크 성경’보다 78년 앞선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상하 2권이 먼저 인쇄됐다. 1년 뒤 1378년 취암사에서 목판으로 다시 인쇄됐다.

임은호 기자

Weekly in 자비나눔

화엄사, ‘천년을 세우다’ 기금 전달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가 종단 주요 종책 사업인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동참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과 기장 해동용궁사 주지 덕림 스님은 6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천년을 세우다’ 기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종단 종책불사를 위해 마음을 내줘 고맙다”면서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실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덕문 스님은 “화엄사와 해동용궁사, 천은사, 사성암 등의 사부대중이 뜻을 모았다. 불사가 원만성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우도규 작가, 선화여고 장학금 전달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에서 부처님오신날 특별전을 개최했던 우도규 작가는 6월 7일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동대부속 영천 선화여고에 장학기금 1000만원을 (재)아름다운동행에 지정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은해사 주지 덕조 스님과 총무원 총무부장 호산 스님 등이 배석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예술가들은 생활이 빠듯함에도 이 같이 큰 기부를 해 주셔서 놀랐다”고 격려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우도규 작가는 동국대 건학위원회에 장학기금 100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신성민 기자

농협카드, 아미타요양병원에 에어컨 100대



NH농협카드가 조계종 직영 스님 전문요양병원인 ‘아미타 불교요양병원’에 에어컨 100대를 기증하며 병원 발전을 염원했다.

윤상운 NH농협카드 사장은 6월 7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에어컨 100대를 기증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아미타요양병원에 깊은 관심을 가져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평생 수행과 포교에 전념한 스님들이 여법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복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백명숙 회장, ‘천년을 세우다’ 기금 전달



백명숙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 회장은 6월 8일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천년을 세우다’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종단 주요 종책불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줘 감사하다. 앞으로 더 많은 불자들이 불사에 동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사회부장 범종 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처장 진경 스님, 미래본부 사무국장 지안 스님 등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